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잡음으로써
주님의 회복의 현재의 이상을 긴밀히 따르고
하나의 본질 안에 머무름

성경: 딤편 1:3-4, 딤편 1:9, 롬 15:6, 고전 1:10, 요 17:11, 21-23

- I. 우리는 반드시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가르침을 붙잡음으로써 주님의 회복의 현재의 이상을 긴밀히 따라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이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는 요인이다—딤편 1:9, 행 2:42상, 46상, 딤편 1:3-4, 4:6, 딤편 3:10, 엡 1:10, 3:9.
- A.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이상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이며,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을 통해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심으로, 사람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 그분의 지체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어 삼일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엡 3:8-11, 16-21, 4:4-6.
- B.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한 가지, 곧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과 전부로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골 3:10-11.
- C.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내용은 그리스도이다. 사실상 세 단계로 된 충만한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 신성한 경륜이시다—요 1:14, 고전 15:45하, 계 1:4, 3:1, 4:5, 5:6.
1.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커다란 바퀴의 축(중심)이시고 바퀴살(버팀대)이시며 테(둘레)이시다—골 1:17, 겔 1:15.
 2.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체험의 탁월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한 가지’ 이외의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 가운데서 분쟁이 생기게 된다—빌 2:2, 3:8, 12-14, 눅 10:41하-42, 시 27:4.
- D.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유일한 가르침 이외의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들은 항상 사탄에게 이용되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야기하고 심지어 분열까지도 야기한다—히 13:9상, 딤편 1:3-4, 6:3-4.
- E.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빗나가게 하는 모든 가르침은,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떠나려가게 하는 바람이다—엡 4:14.
1.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에 의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분열적이냐 분열적이지 않느냐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2. 가르침의 바람은 어떤 믿는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좌절시키며,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지체들을 분열시킨다—딤편 2:18, 고전 1:10-11.
- F. 주님의 회복 안에서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며 공급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오직 한 가지 사역만이 건축하고 결코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사역이다—딤편 1:3-4.
1. “인간의 교만은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기를 좋아한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말하면 나는 나의 교만 때문에 여러분이 말한 것을 절대로 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말한 것과 다른 것, 새롭고 더 나은 것을 말하기 원한다. 이것이 자아이며, 육체에 속한 교만이다.” (신성한 경륜, 139쪽)
 2. 한 새사람을 위해 영원한 하나 안에 보존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동일한 것, 곧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는 것이다—롬 15:6.

II.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는 ‘한 새사람’을 로마서 15장 6절에 나오는 ‘한 입’과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 ‘같은 것을 말하고’라는 말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

- A. 한 새사람인 교회를 위해 우리는 모두 말하는 문제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아야 한다—마 12:34-37, 엡 3:17상, 요 7:16-18, 8:28, 38상, 12:49-50, 14:10.
- B. 오직 한 새사람이 있고, 한 새사람에게는 오직 한 인격이 있다. 따라서 한 새사람은 한 입으로 말하고 같은 것을 말한다—골 3:10-11, 히 1:1-2상, 참조 창 11:7, 9.
- C. ‘한마음 한뜻’과 ‘한 입’은(롬 15:6), 많은 사람이 있고 모두가 말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한다’(고전 1:10)는 것을 의미한다.
- D.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한 인격으로 가진 한 새사람이다. 이 인격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제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같은 것’이다.
- E. 한 새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이 있고, 오직 이 인격만이 말할 자유가 있다—마 17:5.
 - 1. 한 새사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말할 자유가 없다.
 - 2. 주 예수님은 말씀하실 절대적인 자유를 갖고 계시지만, 우리의 타고난 사람은 말할 자유가 조금도 없다.
- F. 많은 사람이 있고 우리 모두가 여러 곳에서 왔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오직 한 인격을 가진 한 새사람이기 때문이다—엡 2:15, 4:22-24, 3:17상, 고전 2:10.

III.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하나는 하나의 본질인 생명과 빛에 의해 보존된다.

- A. 에스겔서 37장은 우리가 하나 안에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호흡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계시한다—겔 37:1-14.
 - 1. 진정한 하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갖는 유일한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다—마 7:13-14, 계 22:1, 요 10:10상, 1:4, 8:12, 골 2:19.
 - 2. 하나님은 하나라는 터 위에 있는 회막에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말씀은 빛을 가져오고, 빛은 생명을 산출한다. 우리는 하나라는 터 위에 있기 때문에 빛을 얻는다—레 1:1, 출 25:22, 참조 롬 3:25.
 - 3. 빛과 생명과 하나는 순환을 이룬다. 빛이 더 많을수록 생명이 더 많고, 생명이 더 많을수록 하나가 더 많으며, 하나가 더 많을수록 빛이 더 많다—요일 1:1-9.
- B. 시편 133편은 주님께서 ‘거기서’, 곧 하나 위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복을 명하셨다고 말한다. 하나 안에 머무르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 안에 머물러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를 유지하기 때문이다—시 133:3.
- C. 요한복음 17장은 하나의 본질이 생명과 빛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 1. 아버지의 이름 안에 지켜지는 것은 그분의 생명에 의해, 그분의 생명 안에 지켜지는 것이다. 오직 아버지에게서 나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이들만이 아버지의 이름에 참여할 수 있다—요 17:11.
 - 2.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빛의 문제이다. 거룩하게 하는 진리는 빛의 비춤이며, 이러한 빛의 비춤에 의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요 17:17, 21.
 - 3.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단체적이고 건축된 방식으로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누림 안으로 이끌리어, 그분의 빛나는 표현을 위해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에 이르는 것이다—요 17:22-23, 엡 4:11-13.
- D.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생명과 빛이 새 예루살렘의 하나의 본질이라는 것을 계시한다—계 21:23, 22:1-2, 14, 17.

IV. 하나는 우리를 악에서 지켜 주는 반면에 분열은 악에게 문을 열어 준다.

- A. 하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그 영, 긍정적인 모든 복을 포함한다—시 133편, 엡 1:3, 4:4-6.
- B. 분열도 모든 것을 포함한다. 분열은 사탄, 죄, 세상적인 것, 육체, 자아, 옛사람, 악한 성질, 부정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다—롬 16:17-18, 유 19.
- C. 새 예루살렘은 하나와 그 안에 포함된 긍정적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완결이며, 불 못은 분열과 그 안에 포함된 부정적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저장소이다—계 21:2, 20:10.

V. 하나의 본질 안에 머무르려면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자아의 선택과 자아의 선호를 거절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많은 분열은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진 결과이다—신 12:5, 8, 13, 17, 고전 1:10-12.

- A.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선택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예물을 누리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사람의 선호로 야기되는 분열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신 12:8, 13, 17, 참조 요 4:24, 엡 4:3, 고전 1:10.
- B. 좋은 땅을 분배할 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좋은 땅의 몫에 관하여 자기 스스로 선택했다—민 32:1-22.
 - 1.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땅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동쪽에서 온 이방인 침략자들에게 제일 먼저 빼앗긴 땅이 되었다—대상 5:25-26.
 - 2. 영적인 일들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께서 그분의 선택에 따라 원하시는 것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다—참조 창 13:5-18.
 - 3. 두 지파가 자신의 요구를 한 것은 그들이 가진 것(심히 많은 가축의 떼—민 32:1)과 그들이 본 것(가축을 기르기에 적당한 땅—민 32:4) 때문이었다.
 - a.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곧 첫째로 우리가 가진 것과 필요한 것을 고려하고, 둘째로 우리 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기회가 우리 필요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b. 교회생활과 주님의 일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복지를 돌보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려는 유혹을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 4.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민 32:22.
 - 5.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좋은 땅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되거나 장사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몸이 없이 독자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얻는 것을 상징한다.
 - 6. 우리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본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선택해 주시도록 허락한 다른 지파들의 본을 따르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반드시 몸을 의식하고 몸을 중심 삼아야 한다.
 - a. 각 지방 교회는 각자의 행정을 갖고 있지만,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몸 전체의 지방적인 표현들이 다른 교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반드시 주의 깊게 고려하며 그 일을 해야 한다.
 - b. 우리는 모두 우리가 주님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으며, 주님의 회복은 주님의 유일한 증거를 위해 주님의 유일한 몸을 산출하는 주님의 한 사역에 의한 주님의 한 움직임에 속한 것임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